

# 제주 해녀 표상의 사적(史的) 변천 연구\*

김 동 현\*\*

## < 목 차 >

1. 들어가며
2. 해녀의 '발견'과 상상된 공동체
3. 근대 이전의 제주 해녀 표상
4. 식민지 시기의 제주 해녀 표상
5. 나가며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해녀 표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동안 제주 해녀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여성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녀는 '억척스러운 제주 어머니' 상(像)에서 국가 간 '문화전쟁'의 경쟁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지켜줄 존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되 제주 해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제주 해녀 표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어 왔던 제주 해녀를 시대의 욕망이 발견한 표상의 집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식민지 시기 제주 해녀는 '인어'의 현현이자 자연의 미인으로, 혹은 제국 일본의 전쟁에 동원된 남성을 응원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근로의 여신으로 혹은 한국적 문화유산의 원형질로서 호명되어 왔다. 이처럼 제주 해녀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시대적 욕망이 발견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형태로 발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 해녀는 사회적 욕망이 발견한 또 다른 상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해녀, 해녀 표상, 서벌턴, 전통의 발견, 제주 로컬리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071)

\*\* 제주대학교.

## 1. 들어가며

그동안 제주 해녀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sup>1)</sup> 해녀·해녀문화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한국 대표 목록에 선정되면서 해녀에 대한 관심은 대중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09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지역 언론에서도 다양한 기획 기사들을 생산했다. 대표적인 것이 제민일보의 대하기획 해녀 시리즈이다. 제민일보는 2005년 창간 15주년을 맞아 ‘제주 잠녀-인류문화유산으로’라는 기획을 선보였다.<sup>2)</sup> 이후 제민일보는 11년 동안 해녀에 대한 다양한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sup>3)</sup> 결국

- 
- 1) 그동안의 주요한 해녀 연구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속학: 김영돈·김병국·서경림, <해녀 조사 연구>, 《탐라문화》 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김영돈·고광민·한림화,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② 사회학: 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한국사회학회, 1996; 고승한, <제주 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 변화>, 《제주발전연구》 통권 제8권, 제주발전연구원, 2004. ③ 인류학: 유철인, <물질하는 것도 머리 싸움: 제주해녀의 생애 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안미정, <제주 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 연구》 15, 1998 ④ 종합적 성격의 연구: 강대원, 《해녀 연구》, 한진문화사, 1973; 강대원, 《제주잠수권의 투쟁사》, 제주문화, 2001.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이성훈이 엮은 《해녀연구총서》 전 5권,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학교방, 2014가 있으며 이외에도 좌혜경,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안미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녀를 연구하고 있다. 안미정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열린 바다의 분쟁: 식민지 관행과 해양 자유론의 재고찰>, 《일본학》 34,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해항 도시의 이주자: 부산시 해녀 커뮤니티의 존재 양상>, 《역사와 경계》 89, 부산경남사학회, 2013.
- 2) 제민일보, <잠녀, 우리의 어머니-프로로그: 왜 잠녀인가>, 2005년 6월 2일.
- 3) 제민일보는 이러한 장기 기획으로 2017년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제48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한다.

2016년 11월 30일 제주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녀는 ‘억척스러운 제주 어머니’<sup>4)</sup> 상(像)에서 국가 간 ‘문화전쟁’의 경쟁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지켜줄 존재로까지<sup>5)</sup> 인식되고 있다. 이 글은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제주 해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모하여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해녀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미디어에 나타난 제주 해녀 표상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주 해녀 표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주 해녀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욕망에 의해 필요에 따라 호명된 발견의 대상물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원진의 《탐라지》를 시작으로 하여 옛 문헌에 나타난 제주 해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제주 해녀를 전근대와 근대를 가로지르는 횡단적 경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형으로서 인식하게 하였다. 이 같은 인식은 잠수 혹은 잠녀라는 존재로 기록되어 왔던 제주 해녀와 식민지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제주 해녀를 동일시하는 이유가 되어왔다. 이 글은 이러한 동일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제주 해녀를 호명하는 사회문화적 방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제주 해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호명되었고 발견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지역에서 해녀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뜨겁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주 해녀는 그야말로 천역(賤役)으로 치부되었다. 그것은 그 작업의 고됨이 주요 원인이기도 했지만 해녀 물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식에게 해녀 물질을 물려주는 일은 천형(天刑)을 대물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식하였다. 현재 제주 해녀가 고령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녀 문화의 상실을 우려하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제주 해녀의 직업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제주 해녀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여성사의 한 일원으로 제주 해녀를 인식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sup>6)</sup> 이는 제주 해녀 표상이 그 자체로 시대적 욕망이 개

4) ‘잠녀를 만나다-울릉도 독도의 제주 해녀들’, 《제민일보》, 2009. 5. 18.

5)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2015),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입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제주해녀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 집적물인 동시에 그것을 가능케 한 사회적 동인(動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의 언론에 비춰진 해녀의 모습은 원시적인 나잡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내에서도 특이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 이후 제주 지역 내의 경제개발 담론이 대두하면서 제주 해녀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해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학적 측면에서 제주 해녀는 민속학적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학, 인류학, 사회학적 차원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생활사적 측면 또는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제주 해녀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제주 해녀를 균일한 대상으로 상정하고 그것의 공통적인 속성을 통해 제주 해녀의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들은 해녀라는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에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제주 해녀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의 인식-제주 해녀를 억척스럽고 강인한 여성으로 상정하거나 제주 여성의 대표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재확인할 우려가 있다.

제주 해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과정, 즉 미디어, 문학, 구술자료 등에 나타난 해녀 표상 등을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지역의 자기 인식의 구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 해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 나아가 제주 해녀를 상상하는 사회적 욕망의 동인(動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 해녀를 둘러싼 사회적 욕망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인 동시에 제주 해녀에 대한 인식의 시작을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제주 해녀를 ‘근원’(origin)이 아니라 ‘시작’(beginning)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인류학적, 사회학적, 민속학적 연구들이 제주 해녀

---

6) 이 같은 움직임에는 제주도의 주도에 의해 제주 해녀를 제주 여성문화, 혹은 여성사의 일원으로 발견하려는 일련의 작업들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성과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물로 나타났다.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 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2002,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문화상징》.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1년에 ‘해녀문화 세계화 방안’ 토론회와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연 이어 개최한 바 있다.

의 생활문화, 조업 형태, 민속학적 특징 등을 살펴보면서 제주적인 로컬리티의 원형질로서의 제주 해녀를 상징해 왔다는 비판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그동안의 연구들이 ‘순수한’ 제주 해녀 문화를 상징하고 그것의 특징에 천착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수’한 문화를 상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화’를 고정적인 실체로 인식하는 일이다. “문화가 정치적이념적 명분들이 서로 뒤섞이는 일종의 극장”<sup>7)</sup>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문화’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성과 이념성이 착종된 오염 상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때 오염이란 원형의 훼손이나 망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 해녀를 인식할 때 ‘제주해녀’만을 고려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서울-중심/제주 주변’이라는 위계와 함께 지역 내에서 ‘남성/여성’이라는 또 다른 위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야 한다.

이 글은 제주 해녀에 대한 인식의 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주 해녀를 균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균질적인 존재로 포섭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욕망,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의 내부로 포섭하려고 한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2. ‘해녀’의 발견과 상상된 공동체

2003년 이후 제주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제주 해녀에 대한 지역 내 인식은 차별적으로 작동하였다. 제주가 국민 국가 내에서 내부 식민지적 차이와 차별을 겪어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제주 해녀는 이중의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존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 해녀는 ‘서벌턴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해녀가 제주 여성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왔던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제주 해녀는 비존재로 존재하는 대상이었다. 이는 여러 사례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1964년 제주에서 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 <해

7)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1994, p.24

녀>가 촬영될 당시 제주도청은 영화 출연진과 지역 문화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열었다. 이 좌담회 참석자 명단에는 한 명의 해녀(김사희)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날 좌담회 내내 그는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날 좌담회에서 해녀가 발언을 하였는지 아니면 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해녀 대표로 참석한 해녀가 좌담회 내내 발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8)</sup>

해녀가 영화화 될 때 해녀는 정작 침묵한다. 김사희가 이날 좌담회에서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사실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사희가 발언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의 발언은 지역 내 남성 지식인의 발화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시 좌담회가 지역이 외부의 주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학적 실천의 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김사희는 이러한 실천적 주체의 자리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로컬리티를 규정함에 있어 지역 내부에서도 포섭과 배제의 논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해녀의 존재를 규정하는 지역의 주체들은 해녀가 아니라 해녀에 대해 말하고 있는 지식인-남성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에서 지식인-남성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자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sup>9)</sup>

8) 제주도청 편, 《제주도》 제15호, 제주도, 1964. 7, pp.68-76쪽. 이날 좌담회에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고정일(제주신문편집국장) △김영돈(제주도민속학회대표) △ 김사희(해녀대표) △나애심(배우) △박영환(감독) △박옥초(배우) △박지현(배우) △안경호(제작부장) △양중해(예총제주도지부장) △이택준(제주어업조합전무) △최은희(배우) △최지희(배우) △현평숙(제주도교육위교육과장) △현평효(제대교수) △홍순만(제주도공보과장) △사회 이치근(공보과) 참석자의 직책은 《제주도》지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참석자 명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좌담회에는 분명히 영화 제작의 당사자인 해녀가 참석했다. 하지만 좌담회 기사 어느 곳에서도 해녀의 발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9) 지역에서 여성의 발화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앞으로 로컬리티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박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자인 동시에 말해야 하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화자의 침묵은 일정부분 강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내부에서 중심-주변의 위계가 폭력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계의 반복이 로컬리티의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64년 제작된 영화 <해녀>가 개봉되자 당시 좌담회에서 참석했던 이치근이 “생활 없는 해녀”의 모습을 확인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것을 감안한다면 ‘해녀’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러한 배치의 문제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제주해녀가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차별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그러한 차별의 방식인 지식인-남성/해녀-여성이라는 구도 속에 놓여있었음을 의미한다.

제주 해녀에 대한 1960년대의 인식이 과연 특정한 시기에 이뤄졌던 일회성의 일이었던가. 그렇지 않다. 제주 해녀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상의 영역에서 이뤄져왔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1980년대 탐동 매립 과정에서 일어났던 제주 해녀들의 투쟁이다.

1989년 제주시 탐동매립 과정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제주시 삼도동 잠수회 소속 해녀들의 투쟁이 지방정부, 경찰뿐만 아니라 수협, 어촌계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1989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제주본부가 펴낸 기관지 <<제주의소리>>에 실린 삼도동 전 잠수회장 강달인의 인터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57세였던 강달인은 25세에 남편을 여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녀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탐동 매립 반대운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반대운동과 관련해서 지역 수협, 어촌계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농성하는 걸 시청에서도 잘못했져, 경찰이영, 수협에서도, 어촌계까지도 잘못했져, 이웃사람덜도 돈받아 먹고 너무한다는 식으로 곤는거라.”<sup>10)</sup> 탐동 매립은 해녀들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였다. 해녀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생존권 투쟁이었고 절박한 싸움이였다. 하지만 해녀들의 투쟁은 강달인의 증언에서 보듯이 외로운 싸움이였다. 탐동 매립 투쟁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강달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간담회가 잘 되어서민 좋겠주만,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니 허는 사람 덜이 나와줄거 닳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덜인데 우리 해녀덜을 깔짜그네 흘시 대하는거 닳은디 언제 그 사람덜이 우리신디 잘햐면 현직이서. 보상금

10)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 <<제주의 소리>> 5.5, 1989, p.15.

받았젠허주만 벌써 몇 달째 일 못하고 싸우는다 해녀덜 사는게 말로다 못하게  
곤란허주<sup>11)</sup>)

지역의 권력자들이 해녀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들이라고 “깎보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달인의 말은 지역에서 권력과 젠더의 위계가 일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 해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제주 지역 내에서도 미비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변모하였을까.

### 3. 근대 이전의 제주 해녀 표상

그동안 제주 해녀를 거론함에 있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왔던 것은 고문헌 속에 나타난 제주 해녀의 모습이었다. 예를 들어 1702년(숙종 28년) 제주 목사 이형상의 《탐라순력도》는 제주 해녀의 근원(origin)을 설명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탐라순력도》의 하나인 병담범주(屏潭泛舟)는 취병담(현재 용연)에서 뱃놀이를 기록한 그림이다. 여기에 나타난 해녀의 모습은 문헌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해녀의 그림이다. 이원조(1792~1872)의 《탐라록》에는 취병담에서의 뱃놀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잡녀 수십 명을 불러 들어 해삼과 전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병담범주의 그림 속 해녀들이 해삼과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옛 문헌에 나타난 제주 해녀에 대한 기록들은 제주해녀박물관에서 펴낸 《제주해녀사료집》에 자세히 나와있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김상헌의 《남사록》, 앞서 살펴본 이원진의 《탐라지》에도 해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목사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1629년)에는 “해녀들은 생전복을 채취해 관가에 바치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녀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

11) 위의 글.



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이처럼 옛 문헌 속에 기록된 해녀들은 힘든 노동을 하지 만 전복과 해삼 등 수확물을 관가에 바쳐야 하는 수탈과 착취의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볼 때 주의할 게 있다. 그것은 이러한 기록들이 외부인의 시선에서 제주 해녀를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해녀 표상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탐라순력도(1792년 숙종 28) ‘병담범주(屏潭泛舟)’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병담범주는 제주 용연, 취병담에서 뱃놀이를 기록한 그림이다. 용연에서 뱃놀이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 나타난 해녀는 문헌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해녀 그림이다.

‘병담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병문천과 별랑포(별랑포는 병문천 하류의 지명. 부러릿계라고도 한다)가 보이고 그 옆으로 대천이 보인다. 대천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한천이다. 여기에서는 뱃놀이를 하는 목사 일행이 잠녀 수십 명을 불러 해삼과 전복을 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 해녀 기록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주 해녀, 특히 제주에서의 나잠 어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문헌으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13년 4월에 사신을 위(魏)에 보내어 조공하니(중략)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오고 옥은 섭라에의 소산인데, 부여는 물길에게 쫓기고, 섭라는 백제에게 병합되었으니”라는 부분이 등장한다.<sup>12)</sup> 여기에 등장하는 섭라는 탐라의 옛 이름으로 옥을 바치었다는 대목을 바다에서 진주를 캐어 진상했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한다. 바다에서 진주를 채취해 바쳤다는 기사는 《고려사》 문종 33년, 충렬왕 2년에도 등장한다. 이 같은 공식 기록 이외에 개인문집에서도 해녀에 관한 사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주목사 이건(李健)이 쓴 《제주풍토기》(1629년)에는 “해녀들은 생전복을 채취해 관가에 바치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의식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녀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서 “물에 들어가 어물을 잡는 일을 하는데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다. 고을의 풍속에 잠녀를 첩으로 얻는 일을 능사로 하고 세력에 의지하는 자는 관가의 부역을 면하여 자식이 없고 의지

12)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문자왕 13년조.

할 곳이 없는 사람만 진상하는 노력에 동원되니 괴로움이 심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식민지 시기 제주 해녀가 민속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검토되었던 것도 일차적으로 이러한 과거 문헌의 기록들이었다. 그동안 제주 해녀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문헌의 기록을 우선으로 하여 제주 해녀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접근은 제주 해녀의 근원을 상정함으로써 제주 해녀가 역사적으로 항상 고정된 실체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해녀라는 명칭 대신 잠수, 혹은 잠녀로 불러야 한다는 논의는 근대 이전 제주에 존재해왔던 잠녀, 잠수와 근대 이후의 해녀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 해녀를 일본 식민 자본주의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조선의 변경에 위치했던 제주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sup>13)</sup> 제주 해녀에 대한 인식이 근대적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주 해녀는 지역이 근대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집단이다. 때문에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것과 근대 이후 제주 해녀를 호명하고 ‘발견’하는 사회적 욕망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 4. 식민지 시기 제주 해녀 표상

그렇다면 근대 이후 해녀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제주해녀박물관이 펴낸 《제주해녀사료집》은<sup>14)</sup> 제주 해녀와 관련한 신문자료 중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매일신보 등 1920년 이전의 기사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해녀가 미디어에 어떻게 포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매일신보에 나타나는 해녀는 입어로 인상 요구 등 경제적 요인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3)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한국사회학》 제30집, 한국사회학회, 1996, p.235.

14)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2009.

제주도 및 각소에 주재하는 해녀가 연합하여 명년도 울산 연안의 해초 조업료의 인하를 전라남도청에 탄원코자 일체 서류를 작제하여 목하 조인 중이리는데 그 내용을 문학측 본녀의 입어료는 일 전 4원30전이라는 파격의 요금을 징수하였으나 당시 어기가 절박함으로 맘고를 인하고 즉시 조업에 착수하였으나 그 결과가 근년 회견하는 대불어로 전남료 (해독불가) 즉 명년도는 충분 조사한 후 입어료금 인하를 한탄함이다.<sup>15)</sup>

해녀 입어료 문제는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는 부분이다. 이는 해녀의 노동이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시대 해녀들의 생산물이 진상품이었다면 이제는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물의 교환가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일본 무역상들이 등장하면서 해녀들의 생산물은 환금성을 띤 상품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sup>16)</sup>

해녀들이 자본주의적 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입어료 분쟁을 다루는 미디어의 기사들도 늘어난다. 이런 사실들은 역설적으로 해녀들이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출가 물질을 하게 되는 이동의 동선을 생산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잠수기선을 동원한 일본의 기업형 어업들이 등장하면서 제주 해녀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수탈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sup>17)</sup> 이는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김윤식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제 고기잡이 일본 사람 수십 명이 성안에 들어와 흠어져 다니며 관광을 했다. 이 가운데서 세 사람이 문경(나인영)과 필담을 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이는 15세이나 글을 잘 하는데 자기말로 나가사키에 살고 있으며, 배마다 하루에 전복을 잡는게 30궤미(한 궤미는 20개), 즉 600개라고 한다.

제주의 각 포구에 일본 어선이 무려 3~4백 척이 되므로 각 배가 날마다 잡아 버리는 게 대강 이런 숫자라면 이미 15~6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어업에서 얻은

15) 매일신보, 1913년 8월 31일.

16)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9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p.51.

17)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pp. 135-164.

이익의 두터움이 이와 같은데 본지인은 스스로 배 한 척 구하지 못하고 팔짱끼고 주어 버리고 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sup>18)</sup>

기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수탈적 관점에서 제주 해녀들의 어획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유로 출가해녀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주 해녀들의 출가가 1887년 경남 부산의 목도(牧島)가 시초였다는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초기 한반도 남부에 국한되었던 출가는 북부, 일본, 다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확대되었고 그 수는 1920년대에 2500명에서 30년대에는 4000명으로 늘어나기에 이른다.<sup>20)</sup>

이러한 이동의 동선은 1923년 제주-오사카 직항노선이 운행되면서 제주의 노동력이 일본 경제권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른 시기에 해녀들의 상시적 이동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주에서 상시적 이주의 대상으로 해녀의 노동력이 발산되었다는 사실은 해녀들이 탈경제적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이주와 탈경제는 종종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주체로서 호명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경제 활동이 식민지 경제 체제라는 한계, 그리고 경제 구조 안에서 ‘여성’ 노동자로서의 위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했던 1913년 매일신보 기사는 1912년 일어났던 울산 소요 사건의 결과이다. 즉 출가해녀들이 지방 어민과의 분쟁을 겪으면서 그 지역 어업조합에 입어료를 주지 않으면 어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sup>21)</sup>

즉 해녀들의 경제 활동은 단순히 식민지적 수탈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채취한 해조류를 객주에게 판매하였다. 하지만 이 객주들은 채취량과 가격을 속이기도 하였고 출가 해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리의 선수금을 주고 사실상 노동력 착취나 다름없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sup>22)</sup> 박찬

18) 김운식, 《속음청사》, 광무 3년(1899년) 8월 29일.

19) 양홍식·오테용, 《제주향토기》, 프린트본, 1958.

20) 박찬식, 앞의 글, p.152.

21) 강대원, 《제주잠수권익투쟁사》, 제주문화, 2001. 참조.

22) 박찬식, 위의 글, p.153.

식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객주들은 일본인 상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객주들이 해녀들의 생산물을 일본인 조합에 판매하는 행위만 했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자 기사이다. 당시 기사에는 ‘가련한 해녀의 운명-죽도록 애써서 잡놈만 살찌워 보호할 방책에 성의 없는 당국’이라는 제목으로 해녀들의 상시적 수탈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에서 가장 큰 섬이요,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도는 어린 아해들까지라도 모르는 이가 없거니와 그 섬에서는 거의 바다의 소산으로 생애를 삼으며 특별히 그곳에서는 사나이보다 여자가 많이 활동하여 물 속에도 들어가고 멀리 본토로 장사도 다닌다함은 우리가 이미 들은 지 오래이며 해녀의 활동으로 생산하는 돈이 일년에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매년에 바다에 나가서 해조류와 어물을 잡는 여자의 수효는 만여명에 달하고 그 중에 매년 사월부터 구월까지 부산, 울산 등지에 나아가서 활동하는 여자의 수효가 사천명 이상이나 되며 6-7장 이상이나 물 속으로 들어가서 전복과 기타 해조를 따내는 동시에 여러 가지로 바다 속의 발견도 많이 하였다. 그런데 이네의 수입은 한 사람이 평균 300원 값어치를 생산함으로 사천 명의 총 수입은 실로 120만원의 큰 돈을 생산하여 실로 조선 수산계에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적게 말하면 그네의 활동은 제주도의 생명이요, 다시 말하면 조선 산업계에 중대한 현상이다. 그러나 해녀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비참한 일이 많이 있다. 해녀가 부산 등지에 나오면 물상객주(物商客主)에게 의지하여 4-5삭 동안을 유숙도 하고 돈도 꾸어 쓰는 터인데 소위 물상객주라는 자들의 교활한 농락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은 반년동안이나 부모와 자식을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뜨거운 별 햇살을 태워가며 벌여 놓은 돈을 거의 다 소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도리어 객주에게 빚을 더 얻어쓰고 빈 손만 쥐고 돌아가게 될 비참한 운명에 있다.<sup>23)</sup>

기사에는 출가 해녀들의 현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출가 해녀들의 숫자가 1만여명에 이르고 그들의 평균 출가 기간이 6개월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23)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가 해녀들이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물상객주’들의 농간 때문에 빈 손으로 제주에 오거나 심지어 더 큰 빚을 지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해녀들의 노동력 착취에 앞장섰던 물상 객주들은 누구인가.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보자.

소위 물상객주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주도 사람이요, 해녀의 남편 노릇 하던 사람이 많으니 그들은 해녀를 다섯 명만 거느리게 되면 곧 왜채(倭債)라도 아무 보증도 없이 내일 수가 있게 된 형편이 있으니 일본사람들은 객주에게 돈을 취하여 주고 물건을 헐하게 가져가는 맛에 해녀의 객주라 하면 금송아지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믿고 돈을 주게 되었다. 해녀들은 이와 같이 반부랑자가 다 된 객주에게 돈을 얻어쓰고 나중에 셈은 물건으로 하는 것이 예투인데 교활한 객주와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농락을 하였는지 실상 백근되는 물건을 구입근만 회계하는 버릇을 만들고(하략)<sup>24)</sup>

기사의 내용은 해녀들의 상시적 착취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바로 제주의 남성들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객주로서의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여성인 해녀의 노동력을 수탈하는 주체로 지역 남성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녀 연구에서 이러한 젠더적 위계에 의한 수탈 관계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다. 오히려 출가 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접한 제주도의 유지들이 출가해녀 보호를 위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결성하였다는 부분을 보다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sup>25)</sup>

물상객주들의 일상적 착취와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 유지들이 해녀어업조합 결성에 나섰다라는 두 개의 사실 중에서 그동안 해녀 권익 보호에 나선 지역 내부의 움직임에만 주목하였던 것이다.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1932년 해녀 항일운동을 일제에 저항했던 민족적 항거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이와 같은 지역 내부의 젠더적 위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권력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

25) 출가해녀 조합 결성 관련 내용도 앞서 살펴본 동아일보 기사에서 등장한다.

이처럼 해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을 경제적 주체이자 수탈의 대상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기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식민지 시기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는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가 군국주의 확산에 나서면서 해녀 표상은 다른 양상으로 변모한다. 일단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바다의 기념일을 앞두고.

푸른 물결이 깨어져 어른거리는 포말을 날리는 바위 위에 해녀는 서있다. 검정 속옷에(潛水服)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눈(潛水鏡)을 쓴 해녀의 한 손에는 녹슬은 ‘빗창’이 들려 있고 허리춤에는 해저와의 일전을 개시하려는 직전 무사처럼 무장을 갖춘 해녀의 입 모습에 바다처럼 젊은 웃음이 떠돌았다. 그리고는 어깨 넘어로 둘러맨 두루박과 그물망태가 허공을 갈기고 물 위에 떨어진다. 검붉은 해녀의 육탄은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심산유곡에 온듯, 푸른 섬 속도 해면도 ‘코발트’ 빛 하늘도 모두 정적에 지친 한낮. 지금, 짝을 부르는 사슴떼의 울음과도 같은 해녀들의 휘파람 소리만 바람이 일듯 수없이 합주되어 들려오고 있다. 다도해의 중심이 된 완도는 요즈음 고등어 도미 멸치 생복잡이가 한창이라 해녀들도 생복 소리를 찾아 여기에 모여든다. 태평양의 섬덩이들이 황국홍망의 결전장이 되어 있다면 이 곳의 적고 큰 섬덩이들도 이 전쟁을 승리로 밀고 나가는 전력의 추진기지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섬 이 바다를 지키는 자 해녀의 씩씩한 모습은 그대로 해국 여성의 상징-만리의 파도 넘어 남편을 오빠를 제일선에 내보내고 감연히 ‘바다의 전력증강’에 분투하는 해녀들의 정렬에 찬 노래 소리는 오늘도 조류를 타고 그들 남편과 오빠의 결전장으로 힘차게 흘러가 있다.<sup>26)</sup>

이 기사는 ‘완도에서 최금동 발’이라고 기자 명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총력전 이후 미디어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 해녀는 ‘총후 여성’의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일상적 착취와 수탈로 인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불우한 여성의 모습은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를 격려하는 강인한 신체를 지닌 여성으로 탈바꿈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식민지 시기 해녀 표상이 당대의 욕망, 특히 남성적 욕망이 발견한 시각적 폭력에 의해 재현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현기영이 《바람타는 섬》에서 해녀의 공동체 의식과 상생의 정신을 그려내는 것과 비

26) 매일신보 1944년 7월 19일.

교환다면 지금 우리의 상상 속에 자리잡은 해녀의 이미지, 이를테면 강인한 여성, 모성성의 존재로서의 해녀 표상이 만들어진 상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깊은 물일수록 좋은 미역이 많은지라 잠녀들은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고 나이 나 능력에 따라 얇은 데서 멀리 깊은 데까지 끌고루 바다 위에 퍼져 작업했다. 가깝고 얇은 데는 예순 넘은 할머니들이나 열서너 살짜리 아기 잠녀들의 뚝이고 멀고 깊은 데는 숨이 길고 자맥질 잘하는 상군 잠녀들의 뚝이었다. 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상군 잠녀가 ‘할망바당’(할머니바다)에 들어 물질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로 삼았다. 일흔 살 가깝도록 물질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잠녀들의 생활인 지라 기운 없는 할머니들을 위해 얇은 물에다 ‘할망바당’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sup>27)</sup>

1932년 해녀 항일항쟁을 다루고 있는 《바람타는 섬》에서는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언급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언급은 1960년대 제주 지역의 미디어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 펴낸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 당시 지역 미디어의 해녀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어업권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심에서 촉발되었다. 해녀가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 상생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한 관심은 논의의 대상이었다.

식민지 시기 제주 해녀는 ‘인어’의 현현이자 자연의 미인<sup>28)</sup>으로, 혹은 제국 일본의 전쟁에 동원된 남성을 응원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인식되어 왔다.<sup>29)</sup> 또한 근로의 여신<sup>30)</sup>으로 혹은 한국적 문화유산의 원형질로서 호명되어 왔다. 이처럼 제주 해녀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시대적 욕망이 발견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형태로 발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 해녀는 사회적 욕망이 발견한 또 다른 상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현기영, 《바람타는 섬》, 창작과비평, pp.46-47.

28) 《매일신보》, 1926. 12. 6.

29) 《매일신보》, 1944. 7. 19.

30) 제주도청 편, 위의 책.



## 4. 나오며

이 글은 제주 해녀가 고정화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의 욕망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고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 해녀는 지역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집단이라는 점에서 근대 이전의 잠수, 잠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주 해녀에 대한 신화적 접근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제주 해녀와 해녀 문화의 현재적 단절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 오히려 신화화되고 박제화된 해녀 표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반성함으로써 제주 해녀와 해녀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과제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해녀와 해녀 문화를 고정된 실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한 존재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대상으로 인식할 때 그동안 제주 해녀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의 인식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 해녀를 사회적 욕망이 상상해 낸 상상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제주 해녀를 호명하는 시대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방대한 미디어, 증언 자료 등을 모두 다룰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해녀 표상의 변천에 대한 연구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양한 해녀 표상을 통해 해녀를 발견한 시대적 욕망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점을 밝힌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각론적 연구는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민속학이 제주 해녀를 발견하는 과정과 그를 통한 제주 해녀의 인식 과정, 그리고 미디어와 영화, 문학 작품에 나타난 제주 해녀의 표상을 살펴봄으로써 제주 해녀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중층적이고 유동적인 집단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제주 해녀를 통해 지역의 로컬리티가 인식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제주 해녀라는 제주적 특성이 지역 내외부에서 발견되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제주 해녀를 매개로 제주라는 지역이 발견되는 양상, 즉 지역 로컬리티 인식의 과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삼국사기》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 《탐라지》
- 《제주도세요람》
- 《매일신보》
- 《제주신보》
- 《제주도지》
- 《탐라순력도》

### 2. 논저

- 강대원, 《해녀연구》, 선진문화사, 1970.
- 강대원, 《제주잠수권의투쟁사》, 제주문화, 2001.
- 강만생, <한말 일본의 제주어민 침탈과 도민대응>, 《제주도연구》 3, 제주도연구회, 1986.
-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제30집 봄호, 1996.
- 고승한, <제주 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 변화>, 《제주발전연구》 통권 제8권, 제주발전연구원, 2004.
- 김두희·김영돈, <해녀어장분구 조사연구>, 《제주교육대학 논문집》 12, 제주교육대학, 1982.
- 김상헌, 김예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 김영돈·서경림·김법국,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6.
- 김영돈, <제주 해녀>, 제주문화자료총서 2 《제주의 민속》, 제주도, 1994.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김영돈·고광민·한림화 공저(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 김수희, <독도어장과 제주해녀>, 《대구사학》 109, 대구사학회, 2011.

-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 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재.
-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5, 제주도 연구회, 1998.
-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10.
- 안미정, <열린 바다위의 분쟁: 식민지 관행과 해양자유론의 재고찰>, 《일본학》 34,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 안미정, <해항도시의 이주자: 부산시 해녀 커뮤니티의 존재 양상>, 《역사와 경계》 89, 부산경남사학회, 2013.
- 유철인,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해녀의 생애 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 이성훈 편저, 《해녀연구총서》 전 5권,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학고방, 2014.
-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 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2002.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20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 전승문화》, 200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상징》, 2008.
- 한림화, 《꽃한송이 숨겨놓고》, 한길사, 1993.
- 현기영, 《바람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 현기영, <거룩한 생애>, 《마지막 테우리》, 1991.
- 홍명표, <본도 출가 해녀의 권익문제>, 《제주도》 37, 1968.
-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1994.

<Abstract>

**Kim, Dong hyun.** *The Study of Social Historical Change on Representation of Jeju Haenyeo.*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symbol of the Jeju haenyeo (female divers) has changed. Until now, the Jeju haenyeo research has accumulated various positive research results from the point of view of anthropology, folklore, sociology, and women's studies. Through the process of registering the Jeju Haenyeo as a UNESCO Cultural Heritage, the Jeju Haenyeo has changed from a 'tough Jeju mom' figure to being recognized as a being protecting the national pride competition of 'culture war' between other countries. This research aims to focus on the change of social awareness of the Jeju haenyeo based on existing research results.

This stud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Jeju haenyeo's process of transition based on existing research, reveals that the Jeju haenyeo, which was known as a symbol of femininity in the past, is in fact, a collection of symbols discovered by the ambition of the times. In order to break the stereotype of the Jeju haenyeo, they must be perceived as not only fixed entities, but also as creative enthusiasts and dynamic subjects. The discussion of the Jeju haenyeo from a postcolonial point of view is what will be what differentiates this study from previous studies. In other words, this study begins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Jeju haenyeo is a product of imagination derived from social desires, then looks into what the Jeju haenyeo is called based on changes in awareness through time.

**Keywords:** Haenyeo, Representation of Jeju Haenyeo, Subaltern, Discover of Tradition, Jeju Locality

\* 이 논문은 2018년 7월 9일에 투고되어 2018년 8월 10일까지 심사하고 2018년 8월 13일에 편집 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되었습니다.